

이슈 브리핑

① 이슈 요약

- ◆ 中 정부, '26년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 허가제를 의무화하며 내연차와 동일한 수출 관리 기준 적용 예고
- ◆ 中 로보택시 3社, 두바이에서 로보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확보하고 중동 지역 내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동
- ◆ Xpeng, 차량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Alibaba Cloud와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 공동개발 착수
- ◆ 日 기업, 관세 여파로 인해 對美 수출은 감소한 반면 對美 FDI는 전체 해외 투자의 47%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
- ◆ Bosch, 유럽 車 산업 부진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여 직원 1.3만 명 감축 계획 발표
- ◆ 유럽 신차 시장, 8월 BEV·HEV·PHEV 판매량이 전년 대비 높은 비율로 증가하며 전동화 진전

◆ 중국 정부, '26년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 허가제 의무화

- 중국 상무부 등 4개 부처는 '26.1.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(BEV) 수출 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(商务部 公告2025年第54号)
- 의무화 대상은 구동 모터만을 장착하고 차대번호(VIN)를 갖춘 승용차로, '12년에 발표된 '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출 질서 규범화 통지'를 따라 수출용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
-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수출 품질 제고 목적임을 밝혔으나,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완성차 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존재

Bloomberg('25.9.26) <http://bit.ly/4mCf6sM> Reuter('25.9.26) <http://bit.ly/4nujfAm>

◆ 중국 3대 로보택시 기업, 두바이 로보택시 시험 운행 허가 획득

- '25.9월 두바이 도로교통청(RTA)이 WeRide·Apollo Go·Pony.ai 등 중국 3대 자율주행 기업에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허가함에 따라, 관련 기업의 상용화 노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
- 이번 허가는 두바이의 "30년 교통 부문 25% 자율주행화" 계획의 일환으로, 중동 자율주행 거점을 희망하는 두바이와 중동 지역 내 입지 강화를 추구하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

GulfBusiness ('25.9.29) <http://bit.ly/46XrnU5> UAESTORIES('25.9.28) <http://bit.ly/487QXGZ>

◆ Xpeng, Alibaba와 차량용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 공동개발

- 중국 전기차 기업 Xpeng은 9월 24일 Alibaba Cloud와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(PQC)*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
- * (Post-Quantum Cryptography) 양자 컴퓨팅의 위협에 대응하는 암호화 기술
- Xpeng은 차세대 P7 세단에 PQC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사용자 인증, OTA 업데이트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, 관련 기술을 전 차종 및 V2X·AI·로보틱스 등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할 계획

Gasgoo('25.9.26) <http://bit.ly/4nlEzYG>

Marklines('25.9.29) <http://bit.ly/46luqOx>

◆ 일본 기업, 관세 여파 속에서 對美 직접투자 역대 최고치 전망

-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, Toyota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은 현지 생산을 늘리며 대응 중
-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의 대미 FDI는 '25년 전체 해외 투자의 47%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* 전망이며, 자동차 외에 반도체·에너지 등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

* 참고로, 일본은 지역별 대외 직접투자 지표를 '14년부터 관리하고 있음

Foutune ('25.9.30) <http://bit.ly/46urSoD> Nikkei Asia('25.9.9) <http://bit.ly/4mOiLUD>

◆ Bosch, 모빌리티 부문 수익성 악화로 직원 1만 3천명 감축 발표

- Bosch는 모빌리티 사업 부문에서 '30년까지 1.3만명(인력의 약 3%)을 감축하고, 25억 유로(약 3조 4천억원)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
- 경쟁 심화·생산량 감소·신기술 지연·디젤 부품 수요 위축 등이 배경으로 지목되며, 감축 대상은 독일 본사 및 독일 내 주요 거점에 집중될 예정
- 한편 Volkswagen·Porsche·Continental 등도 수요 부진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, 이는 독일에 기반한 업체가 인건비·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시사

Bloomberg('25.9.25) <http://bit.ly/46KdN5k> BBC('25.9.26) <http://bit.ly/3VFsnWE>

◆ 유럽 신차 시장, 8월 전동화차 판매량 전년比 급증

- 유럽 자동차제조협회(ACEA)에 따르면 유럽 내 8월 전동화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比 높은 비율(BEV 30.2%, HEV 14.1%, PHEV 54.5%)로 성장
- '25.1월~8월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, 신차 중 BEV 15.8%, HEV 34.7%, PHEV 8.8%로, 전동화차의 합산 비중은 60%에 육박
- 최근에는 6개월 연속 판매량이 증가한 PHEV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, PHEV 판매를 확대 중인 BYD 등 중국 완성차사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 레거시 완성차 기업의 PHEV 대응 강화가 예상됨

Bloomberg('25.9.25) <http://bit.ly/46ZeAR1> ACEA('25.9.25) <http://bit.ly/487azLx>